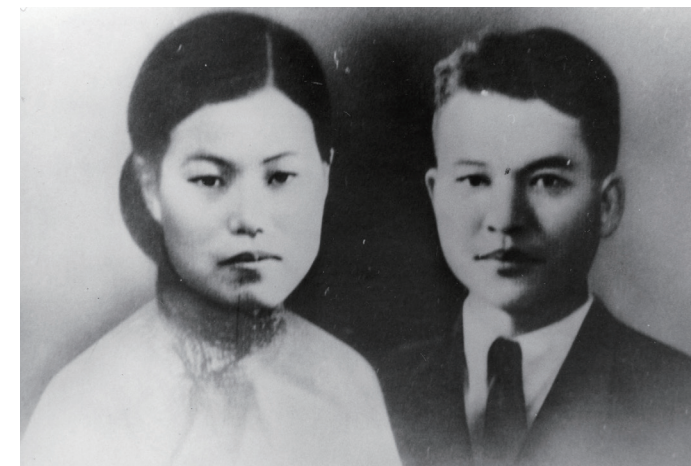


박차정 의사 후손과 마지막 인터뷰

K 국제신문

김미희 기자



박차정 의사와 김원봉 선생 (국제신문 DB)

지난 2월24일 퇴근 시간 무렵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여성 의열단원 박차정(1910~1944) 의사의 조카이자 약산(若山) 김원봉(1898~1958) 선생의 처조카인 박의영(74) 목사였다. 박 목사와는 지난해 11월 의열단 100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박 목사는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간신히 소리를 냈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꼭 김 기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바로 인터뷰 날짜를 잡았다. 그는 심경이 담긴 장문의 문자

를 보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의영 목사입니다! 전번 집안기사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삼일절은 너무 쓸쓸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어수선하지요. 저도 이제 급성백혈병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박문희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한 집안에서 3형제 독립유공자로 기사를 주신 감격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용히 시간 나면 집안의 깊은 내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의영 올림〉

“박차정家 독립운동사 정리해야 하는데...”

다음 날 박 목사가 입원 중인 해운대 백병원을 방문했다. 박 목사는 2014년부터 혈액암인 다발골수종(골수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지난 2월 초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곳에 입원했다. 박 목사는 항암치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기자와 인터뷰 당시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불과 몇 달 사이 건강이 악화됐다. 면역력이 약해져 폐렴까지 겹치면서 장시간 대화가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면역력이 떨어진 박 목사의

여성 의열단원 박차정 의사의 조카이자 약산(若山) 김원봉 선생의 처조카인 박의영 목사가 지난해 11월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유년 시절 힘들었던 가정사와 의열단 결성 100주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상태를 고려해 2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101주년 3·1절을 앞두고 여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건강이 갑작스레 안 좋아진 탓에...” 기자와 만난 박 목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혼과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01주년 3·1절에는 민족분열을 종식시키고 자주독립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게 마지막 일”이라고 전했다. 박 목사는 “이번 3·1절을 앞두고 집안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깝다”며 “제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민족사의 일부분이자 독립운동사이기 때문에 더욱 답답한 마음이 컸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체력이 회복되면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곤욕을 치르면서도 어떻게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왔는지를 후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을 꼭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15분가량의 인터뷰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건강 악화 탓에 긴 시간 말하면 안 된다는 의료진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 목사와 퇴원한 뒤 나머지 인터뷰를 하자는 말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이날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지난 2월 부산 해운대백병원에서 박의영 목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서 독립유공자 3남매 첫 탄생

박 목사의 부산 수영구 자택에는 ‘독립유공자의 집’임을 알리는 명패가 붙어 있다. 1910년 5월8일 부산 동래 복천동에서 출생한 박차정 의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조선의열단을 이끈 약산 김원봉 선생의 배우자다. 박 의사는 1929년 2월 동래일신여학교(현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그해부터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으로 출발,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의해 옥고를 겪었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1931년 김원

봉과 결혼하고 이듬해 남편과 함께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했으며 제1기 여자 교관으로 활약했다. 또 민족혁명당 부인회(조선부인회)를 결성했으며, 조선의용대 복무단장으로 중국 강서성 곤륜관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은 그 후유증으로 1944년 34세의 나이로 순국하기까지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 정부는 한국여성 독립운동의 거목으로 활동한 박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부산 동래구 칠산동 동래고 앞에는 ‘박차정 의사 생가’가 있다. 박 의사가 어릴 적

부터 자연스럽게 항일 민족의식을 키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침탈에 항거해 자결한 아버지와 두 오빠 등 가문의 영향이 컸다.

박 의사의 첫째 오빠가 박문희(1901~1950) 선생, 둘째 오빠가 박문호(1907~1934) 선생이다. 박문희 선생이 박 목사의 아버지다. 박문희 선생은 1925년 동래에서 동래청년연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1929년 12월 신간회 상무위원으로 항일격문을 배포하다 체포됐다. 1932년 8월 중국 남경의 김원봉 의열단

장으로부터 남경군관학교 훈련생 모집을 요청받고 국내로 들어와 경상·경기도 일대에서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목사는 박문희 박문호 박차정 의사 가족을 대표했다. 집안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려던 박 목사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박문호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됐다. 박문호 선생은 1928년 부산에서 동래청년동맹, 동래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이듬해 중국으로 건너가 비밀결사



지난 3월16일 오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박의명 목사의 발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이유 없이 인정받지 못하곤 했다. 박문희, 문호 선생은 의열단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한 탓에 항일독립운동사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성과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집안의 독립운동사 자료를 꾸준히 모아온 박 목사의 공이 컸다. 국내는 물론 일본으로 건너가 자료를 수소문했다. 박 목사는 박차정 의사 생가라는 공식 명칭을 ‘박문희 박문호 박차정 생가’로 바꿨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념 논리에 매몰돼 약산(김원봉의 호)을 모독 말라”

어린 시절 박 목사에게 ‘의열단’이라는 단어는 트라우마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의열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듣기 싫어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다. 당시 정부에선 아버지가 월북했다고 추정해 매달 우리 가족은 신원조사를 받았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라며 “이후에도 외부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살았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반항심이 컸다”고 말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손꼽히는 의열단은 지난

에 가입해 상해·천진·북평 일대에서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또 1933년 10월 비밀결사재건동맹사건으로 체포돼 취조 중 1929년 9월께 정해로부터 군자금을 받아낸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로써 이미 독립유공자인 여동생 박차정 의사와 형 박문희 선생에 이어 한 집안에서 세 번째 독립유공자가 나왔다. 부산에서 독립유공자 삼 남매가 나온 최초 사례였다. 앞서 보수정권 당시 몇 차례 공적 조서를 냈으나 뚜렷한



좌 박문희 선생, 우 박문호 선생 (국제신문 DB)



해 100주년을 맞았다. 1919년 11월10일 창단해 1929년 12월2일 해산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웠다. 부산 출신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박재혁(1895~1921) 의사 역시 의열단원으로 활동했다. 박 의사는 1920년 당시 일제의 심장부였던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체포됐으며, 사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후 단식 끝에 1921년 5월11일 숨졌다. 박 의사는 “왜적의 손에 욕보지 않고 내 손으로 죽자”며 단식하다가 형집행 전에 옥사 순국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직계유족이 없어 외손녀(박 의사의 여동생인 박명진 여사의 손녀)인 김경은 씨가 유족 대표로 그동안 기념사업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현재는 박 의사의 모교인 부산 개성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의로운 뜻을 기리고자 ‘사단법인 박재혁의사기념사업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핵심 인물인 약산 김원봉 선생은 1948년 월북했다는 이유로 공적의 많은 부분이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면서 서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북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원봉 선생을 국군 창설과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 목사는 “정권에 따라 역사를 달리 평가한다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선 불행한 일이다. 역사를 바로 알고 평가해야 한다”며 “1948년 뒤늦게 북한에 간 약산은 내각구성에서도 군이나 당 실권에서 밀려나 명목상 한직인 국가검열상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사가 이념 논리에 함몰돼 역사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권 또는 학자에 따라 역사를 소멸, 단절, 축소시키는 행위가 더는 없어야 한다. 약산을 모독하지 말라”고 단호히 강조했다.

김원봉 선생은 1952년 노동상에 임명됐으나 1958년 김일성 체제에서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숙청을 당한 탓에 묘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3·1운동과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해 김원봉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서적 ‘민족혁명가 김원봉’이 출간됐다. 박 목사는 “의열단



부산 동래구 복천동 박차정 의사의 생가. 박차정의 오빠인 박문희, 박문호 독립운동가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곳이다. (국제신문 DB)

결성 100주년을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 의열투쟁에 앞장선 분들의 정신을 후대가 본받고 제대로 계승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립운동사 정리는 후대의 몫으로

박 목사와 병상 인터뷰를 가진 지 보름 뒤, ‘박의영 목사 별세. 16일 오전 10시 발인’ 갑작스레 부고 문자를 받았다. 그는 지난 3월11일 별세했다. 고

인은 건강 악화로 집안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겠다는 꿈을 끝내 이루지 못했다. 부고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일이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부고 기사를 먼저 써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다. 눈물을 꺾고 참으며 부고 기사를 송고했다. 다음 날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빈소에서 만난 유가족은 “투병 중 유일하게 연락한 기자였다”고 말했다. 박 목사의 꿈은 후대의 몫으로 남았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